

					G-B-16
제목	국문	1999년 임상소견만으로 등록된 중앙암등록 자료 특성 분석			
	영문	An analysis for central cancer registry database based on clinical only diagnosis in 1999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정규원, 원영주, 배종면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암등록통계연구과			
	영문	Kyu-Won Jung, Young-Joo Won, Jong-Myon Bae Cancer Registration & Biostatistics Branch, Division of Cancer Control & Epidemiology, National Cancer Center			
분야	역학 [암]	발표자	정규원 [일반회원]	발표형식	포스터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1. 목적</p> <p>중앙암등록자료의 완성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단방법이 '검사없이 임상만으로' 등록된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</p> <p>2. 방법</p> <p>1999년 1월 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중앙암등록환자 중 진단방법이 검사없이 임상만으로 등록된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. 병원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, 병상수 및 대학병원 여부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, 성별, 연령군별, 암종별, 거주지별, 병상수별 및 병원소재지 분포를 비교하였다.</p> <p>3. 결과</p> <p>임상진단만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1,596명으로 전체(n=82,320)의 1.9%, 비현미경적 진단(n=14,139)의 11.3%를 차지하였다. 성별분포는 남자가 54.5%, 여자가 45.5%로 99년 중앙암등록자료의 성별분포에 비해 여자군이 3%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. 연령군별 등록건수는 전체 자료에 비해 고연령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(70세이상군, 임상진단=26.2%, 전체=20.4%), 원발장기의 분포는 위(17.3%), 간(14.3%), 폐(13.3%), 대장(10.5%), 자궁경부(6.6%) 등으로, 전체등록의 위(20.7%), 폐(12.1%), 간(12.0%), 대장(9.9%), 자궁경부(5.0%) 등의 순위와 비교하여 간과 자궁경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, 위암의 비율은 낮았다. 성별 원발장기의 분포는 남자에서 위(20.8%), 간(20.2%), 폐(15.3%), 여자에서 자궁경부(14.6%), 위(14.5%), 유방(13.9%)순이었다. 주소지별로는 전체 자료에 비해,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았다. 병원별 임상진단 등록 비율의 평균은 6.7%이며, 이 중 총 등록의 42.7%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임상진단 등록 비율은 0.7%이었다. 임상진단 등록이 없는 병원은 총 128개 병원 중 34병원으로 26.6%를 차지하였다. 임상진단 등록 비율이 7.3% (Q3=0.0734을 기준으로) 이상인 병원과 미만인 병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3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, 병상수가 적을수록, 병원 소재지가 중소도시 및 읍면인 병원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4. 고찰</p> <p>임상진단만으로 등록된 환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, 중앙암등록자료의 이용 및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이들은 주로, 중앙암등록 비등록병원인 중소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고 등록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및 pain control 환자 혹은 등록병원의 외래에서 첫 진단을 받은 환자들로 간주되어 있는데, 실제 1,596명 중 972명은 기존의 자료에 등록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. 앞으로, 중앙암등록자료가 전국적인 자료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래환자의 등록 추가 문제와 중소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암발생 자료를 획득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</p>					